WHAT'S YOUR STORY?

GYEONGGI WRITERS HOUSE

(상)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내부, (하)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정문

영화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창작 공간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지난 5월 12일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이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엠시티타워에서
문을 열고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영화 시나리오 작가들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으로
우리나라 영화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을 찾아가 보았다.

글. 사진. 최가영(전략산업과 주무관)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작가 집필공간

영화 산업의 근간인 시나리오 작가 지원 필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한국 영화계를 위해 기획되었다. 2013년 이래 한국 영화산업 전체 관객 수는 2억 명을 지속적으로 넘었고 매출액은 2조를 넘으며 세계 7위의 극장매출을 자랑해왔다. 그러나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영화산업 가결산'에서 극장매출은 전년 대비 73.3% 감소하였고 기획·제작·상영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한국영화산업은 양극화로 산업의 불균형을 걱정했다. 대작영화의 부침이 심해지고 중·저예산 영화, 독립영화시장은 무너져 왔다. 일명 '팔리는 영화만 만든다'는 기획 편중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고착하며 독창적인 기획의 영화는 점차 사라졌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의 근간인 시나리오 작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이다.

시나리오 작가의 창작활동을 위한 집필 공간 제공

고양시는 지난해 11월에 경기도에서 진행한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설립 공모에 응모해 최종 선정되었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은 입주작가 10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집필실과 회의실, 휴게실로 이루어져 있다. 개인집필실은 약 3평의 공간으로 책상, 의자, 수납장, 소파 등 작가를 위한 기본 가구가 갖춰져 있다. 회의실은 작가들이 작품 회의 및 외부 미팅에서 주로 사용되며 같은 건물에 위치한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회의실 및 휴게공간도 사용할 수 있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에 입주하는 작가들은 매월 창작지원금과 작업공간을 지원받는다. 입주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2월,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입주작가 모집에 도내 거주하는 신인·기성 시나리오작가들이 응모해 10명이 선발되었다. 이 중 고양시민은 5명이다.

시나리오에 현실성 불어넣는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입주한 작가들에게는 매월 강의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유명 촬영감독 등 영화계 전문가 특강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가 초청되어 작가들의 소재개발을 위해 강연을 진행한다. 주변에서 흔히 접하기 어려운 프로파일러, 탈북민, 사이버수사대 등 실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초청되어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입주 마지막 달에는 완성된 시나리오의 사업화를 위한 영화사 관계자들과의 비즈매칭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작가는 "작가는 혼자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공간에 입주해 혼자만의 시간,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돼서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작가는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이 저보다 경력이 많은 것 같다. 그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서 자극도 받고 앞으로 더 많은 교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커뮤니티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입주작가에게는 EBS다큐영화제, DMZ다큐영화제의 관람권이 주어지며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교육강사 연계사업도 지원된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문화가 진화하고 있지만,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무대에서 공연을 보는 생생한 체험은 대체할 수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의 입주작가들이 한국 영화계의 새로운 흐름이 되어줄 거라 믿는다.

경기 스토리작가 하우스 고양
위치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195 엠시티타워&엠시티오피스텔

경기 스토리 작가 하우스 개소식 모습

스토리하우스 내부 공간 구성